

가정이나 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음 그림 패킷

성도들이 가정과 와드/지부에서 행하는 복음 토론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출판되었다. 교회 교과 과정 및 개발부에서 제작한 복음 그림 패킷(34737 320, 10,000원)이 현재 교회 출판물 전시 판매장(서울 성전 구내에 있음)과 한국 관리 본부 서적 판매대(신당동)에서 판매중이며, 배부 센터(청운동)에서는 우편 주문만 받는다.

이 패킷에는 구약성서, 신약성서, 물몬경 등의 이야기 및 사건들을 그린 100장 이상의 그림이 들어 있다. 각 그림의 뒷면에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참조 성구가 포함되어 있다. 성도의 벗 크기의 이 그림들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두꺼운 종이에 인쇄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패킷에는 교회사와 관련된 그림 및 엄선된 성전 사진과 교회 예언자들의 초상화가 함께 실려 있다. 이 패킷에는 분류표와 그림 번호의 색인을 수록한 유의 사항 용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패킷은 보관의 편의를 위해 청색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 있다. 전세계의 와드와 지부에서는 현재 이 복음 그림 패킷을 구입하고 있다.

교회 교과 과정 계획 및 개발부의 웨런 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영이 가장 중요한 교사이긴 하지만 시각 보조 자료로 가르치거나 공부할 때 복음 학습 및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반에 사용할 수 있는 복음 그림 패킷

“총관리 직원들께서는 복음에 관한 내용의 그림들을 교육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세계 성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패킷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는 반에서 사용할 패킷 하나와 직접 구입하지 않은 가정을 위해 대여해 줄 패킷 하나를 각 집회소 도서실이 직접 구입하여 비치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서

서희철 형제(영동 스테이크 부장)

“스테이크 부장단 우리 와드 방문하다. 김택우 스테이크 부장님의 겸손한 모습 그리고 감독을 칭찬해 주는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오늘 성찬식에 100여명 참석하다. 와드를 발전시키는 것이 스테이크를 도와주는 길이

될 것이다. 연말에는 성찬식 참석 목표 150명을 달성시키겠다고 말씀드렸다.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89년 3월 26일 제가 감독 부름을 받고 처음으로 스테이크 부장

*



단이 방문했던 날 기록한 제 일기장의 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부름을 받은 저에게 훌륭한 선임자가 있었다는 것은 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스테이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전임 스테이크 부장단 내외, 자매, 지역 대표 그리고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베이트먼 장로님의 훌륭한 말씀으로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가족은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게 겪는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름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저는 영동 스테이크의 많은 성도들과 감독/지부장들 그리고 고등 평의원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과 성품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기도와 격려에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두 보좌와 서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실 것을 압니다.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위험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이때 우리에게 불을 밝혀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그분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 주신 것같이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을 압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영동 스테이크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의 가족

가 여유있고 화려하기까지 보일런지 몰라도 11개의 단위가 있는 넓은 지역이고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퍼져 살고 있어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도 많습니다. 훌륭한 성도와 역원들이 많이 있지만 더 큰 발전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영적인 도움과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93:20)

우리 스테이크 성도들이 주님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은 간편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개

인주의, 편의주의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긴장하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위에 은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이트먼 회장이 집권 때 아내와 같이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전화로 집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님 사업에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동 스테이크에는 훌륭한 자매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반려자와 가족을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영동 스테이크의 신권 형제들이 훌륭한 아내들의 말에 귀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얼마전에 한 성도가 보내 온 아주 작은 선인장이 제 책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즐겨 봅니다.

그것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마치 고개 아니 허리를 구부린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선인장은 저에게 주님 앞에 겸허하고 성도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성도가 보낸 편지에서는 "따스함"에 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와 주님과 가족과 성도들 사이에

항상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았기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일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영동 스테이크의 힘이 한곳으로 모여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힘은 우리 성도들이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이 비상하고 더 깊게 이해는 근원이 되며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교리와 성약 88:68)이 오리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분 부분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요셉 스미스는 말일에 참된 복음을 회복시킨 예언자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살아 계신 예언자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이끄시는 참된 교회임을 간증드립니다. □

권영준 형제 사시 수석 합격

서울 서스테이크 낙성대 와드의 권영준 형제(22)가 제35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현재 서울 대학교 법대 사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권형제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겸손히 첫 소감을 밝혔다.

대구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경북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인 권찬태 형제와 효성여대 음대 강사인 김정애 자매 사이의 장남인 권 형제는 대구 대건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직후 서울 선교부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도 했다.

"선교 사업은 가르치고 전하는 기간이었다기 보다는 배우고 가르침 받는 기간"이었다고 회상하는 권 형제는 선교 사업이 끝나고 복학한 후 고시 공부에 뜻을 두게 되었으며, 고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길을 걷기 위한 '소명'이라고 생각한 그는 고시 공부 기간 동안 "때로는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는 듯한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고백한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랜만에 편하고 포근한 수면을 취했다는 권 형제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알며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며 장래 포부를 밝힌다.

한편 그를 인터뷰한 기사를 실은 국내 각 일간지들은 선교 사업을 한 그의 특이한 경력과 더불어 이례적으로 교회 명칭을 정식으로 기재했으며, 권 형제의 소식을 접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고시 공부 기간 중에도 교회에서 와드 재정 서기, 복음 교리반 교사 등으로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권 형제는 현재 낙성대 와드 선교

책임자 및 기초 복음반 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

35회司試 수석 權英俊君



「하나님과 그 동안 복심 2022. 사신 서울대 사법
학과 40」에 합격 못했
던 영이 이번 시험에 뜻
달고 합격했다.

넉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발표된 제35회 사
법시험에서 권영준 04.
04로 수석합격한 權英俊
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權英俊은 89년 2월 대구
대건고를 수석 졸업하고서
울대 법과 대학원 2학년 A학
점 이수를 유자형인 수석.
기립의 법학박사였었다
다.

權英俊은 법조계에 불고
다.

신앙 독실 휴학후 지방傳道도
판사직 희망 : 司法 독립 노력

權英俊은 하루 평균 10여
시간씩 책과 씨름하며도
서판을 나가지 않았던
다. 신조 아래 공부했다고 말했
다.

權英俊은 법조계와 성계에
맞는 판사직을 지망했다고
밝혔다.

權英俊은 대구 수석구 법
률공 취우단은 47명 이하
특에서 아버지 權榮泰씨
(52. 慶北大 회계학과 교
수)와 어머니 金貞愛씨
(46. 慶星여과 음대강사)
두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
다.

【대구 李相坤 기자

권영준 형제를 인터뷰한 한국일보 10월 13일자 기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권영준 형제(낙성대 와드)

‘나는 힘이 약하여 나를 자랑할 수 없으나 주의 힘으로 만사를 다 할 수 있으며, 나의 주를 자랑하리라’(엘마서 26:12)던 암몬의 기쁨에 넘친 말을 직접 실감케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게는 불가능하던 일을 놀라우신 능력으로 가능케 해주신 그분께 저의 간증을 바칩니다.

니파이가 기록한 바와 같이 저도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그분들로부터 유익하고 훌륭한 것들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세미나리와 청소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교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는 이 교회가 외부에서 이단으로 박해받는 소수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였으며 이러한 충격은 제가 이 교회가 참된지의 여부를 직접 연구해서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의 기간을 거친 후에 저는 이 교회의 원리들을 철저히 고수해 보고자 하는 말일성도 청소년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고교 기간을 계획하면서 안식일을 모두 지키겠다는 것과 선교사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편 오해와 편견의 시각으로 비추어지는 이 교회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신념으로 대입 수석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부모님께 편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의 공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공부 목표량을 달성한 후에야 세미나리에 참석하겠다고 결심했으며 이를 고3에 이르기까지 지켰습니다. 고3이 되면서 저희 와드의 절친했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가장 합당한 고3’이 되기 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아침 일찍 교회로 나와 간단한 청소를 하고 성찬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며 모임을 마치고도 경전 공부, 복음 토론, 중창 연습, 편지 쓰기, 영어 해석, 기도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평일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드렸으며 제 적성과 환경에 맞는 공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 많은 안식일들을 금식과 기도로 보냈으며 하나님께서는 원서 쓰기 얼마 전에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제가 전혀 엄두에 두지 않았던 법대에 가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제가 법대를 택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른 후,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나 3년 동안 간구하던 수석 합격의 소망은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반이 흐른 지금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유보해 두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권영준 형제의 가족, 앞줄 오른쪽이 권영준 형제

대학 입학 후 곧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으며 당시의 상황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한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돌아가야겠다는 강한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가르치고 전하는 기간이었다기보다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이 후에 고시 공부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는 가운데 시간이 꽤 흘렀고 고시 공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3 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생각하면 고시 공부는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소명이었습니다. 저의 뜻만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리라 믿었습니다. 수험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었듯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었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받들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피눈물이 고이는 듯한 중압감에 시달렸으나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을 생각하며 견디어 나갔습니다.

경전도 제대로 읽지 않고 기도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되었던 불신앙의 한 시기에 급기야 저는 우리 교회의 일부다처제의 위헌성에 대해 강의하게 될 헌법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비겁하고 수치스런 기억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교회 형제 자매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저를 지탱케 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있는 1년 동안에도 저는 편지와 전화와 기도로써 가

족의 존재를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2년 1월 어느 날 저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저의 수험 기간을 헌납하였으며 다시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수석의 꿈을 편지로 밝혔습니다. 보도 매체를 통하여 저희 교회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 속에 가득하였습니다.

힘들었던 수험 기간이 끝나고 밤잠 설치며 치르었던 4인간의 시험이 끝난 날, 부모님과 저는 다시 성전에 가서 보살피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고 참으로 오랫동안 편하고 포근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수석 합격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서 수많은 인터뷰가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몇몇 일간 신문과 고시 잡지에서 교회 이름을 삭제하지 않고 보도해 주었는데 이는 순전히 선교 사업이라는 특이한 경력 때문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다녀 온 후에야 수석 합격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수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큰 노력과 희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제가 크나큰 축복을 먼저 받았지만 노력과 희생에 비해 축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후의 생애나 다음 세상에서 어떠한 형태로도 상응하는 축복을 반드시 받으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제 상을 받은’ 저는 앞으로 이 빛을 갚기 위해 겸손하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경전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제 마음속의 간증을 요약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 41:10)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광주 신학 연구원 —

갈릴리 축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신학 연구원에서는 학생회 주최로 갈릴리 축제가 열렸다. 연인원 120여명이 참석한 이 축제 기간 동안 경전 연구 세미나가 4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무도회’, ‘기네스에 도전한다’, ‘경전 퀴즈 대회’, ‘가요제’, ‘체육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곁들여졌다.

특히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된 경전 퀴즈 대회는 광주와 전주 스테이크의 모든 활동 성인들이 참여했으며 1차 필기 예선을 거쳐 48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필기에서는 목포 와드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최낙현 감독이 만점으로 1등을 차지했으며, 48명이 겨룬 본선에서는 광주 스테이크의 독신에서는 강경남 형제(금성), 기혼에서는 김도영, 박현숙 부부(백운)가, 전주 스테이크의 독신에서

는 허수진 자매(정주), 기혼에서는 김요안, 유혹님 부부(노송)가 각각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한편 가요제에서는 박갑진, 범혜정, 박정자로 구성된 팀이 대상을 받았으며 부부 1위는 안성진, 손영주 부부(송정)가 독신 1위는 양광수 외 5명으로 구성된 ‘물망초’팀이 수상했다.

이번 축제에는 부부팀이 많이 참석했으며 독신성인을 능가하는 실력을 발휘하여 이채를 띄었다. □

영동 스테이크 대회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지난 10월 23, 24 양일간 새롭게 신축된 영동 스테이크 센터(송파구 오금동 소재)에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메릴 제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1987년 6월 30일부터 약 6년 4개월동안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한 김택우 부장과 그의 보좌들이 명예롭게 해임되었고,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으로 잠실 와드 감독으로 봉사하던 서희철 형제가 지시되었다.

전임 스테이크 부장 내외 및 부장단, 신임 스테이크 부장 내외, 서울 서 지역 대표인 고원용 장로, 그리고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베이트먼 장로를 비롯한 630여명이 참석한 일요 총회에서 김택우 부장은 '그동안 힘든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지지, 격려해 준 보좌들과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해준

스테이크 서기들께 감사한다'며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였고 부인 김성지 자매는 '87년 패커 사도로부터 부름받을 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던 남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원용 장로는 김택우 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스테이크 부장이야말로 현재 영동 스테이크에서 필요한 지도자라고 말씀했으며, 감리자인 베이트먼 장로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고 어느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던 경험을 통해 신권 지도자를 어떻게 부르시는 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을 지지하고 따를 것을 권고했다.

한편 영동 스테이크 대회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스테이크 내 마친, 둔촌 지부의 헌납식이 베이트먼 장로의 감리와 헌납 기도로 진행되었다. □

(자료 제공 : 민정훈 형제)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40)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6일과 17일 양일간 하반기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개최되었다.

토요 신권 대회에서는 상도 와드 김용 감독이 "접견을 통해 회원을 사랑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고 고등 평의원인 신국재 형제는 성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스테이크 부장단 1보좌인 이상태 형제는 가정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했다.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스테이크 청년 회장인 이인희 자매와 스테이크 청년 회장인 김민서 형제가 청소년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말씀했고 고등 평의원인 최창순 형제는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해, 스테이크 부장단 2보좌인 윤세영 형제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그리고 서울 서 선교부의 닐슨 선교부장은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한편 일요 총회에서는 제35회 사법고시에 수석 합격한 권영준 형제와 사당 와드 이인수 감독,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홍경자 자매가 간증을 하였고, 윤세영 부장, 이상태 부장이 이어 조정환 스테이크 부장은 성도들에게 복음 가운데 하나로 뭉쳐 가족을



뒷줄 왼쪽부터 : 최상업, 민정훈 앞줄 왼쪽부터 : 최남용, 서희철, 차종화

사랑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는 박재윤 형제(상도), 최명헌 형제(낙성대)가 장로로 지지되었다. □

(자료 제공 : 최창윤 형제)

인천 스테이크 대회

지난 11월 6, 7일 양일간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느냐?”(엘마서 5:14)라는 주제로 후반기 인천 스테이크 대회가 개최되었다.

인천 스테이크 부장인 박동화 형제의 감리로 열린 이 대회에는 서울 선교부의 닐슨 선교부장, 전 서울 성전장인 박병규 형제, 전 대전 선교부장인 홍무광 형제, 초대 인천 스테이크 부

장인 허채 형제 등 52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6일 오후에 있었던 청소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는 청소년들이 “침례 성약을 지키고 성전 성약을 맺으며 선교 사업을 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말씀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성적인 순결과 관련하여 말일의 예언자들의 표준에 대한 권고를 소개했다.

또한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전 인천 스테이크 부장인 홍유남 형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졌다.

7일 일요총회에서는 닐슨 선교부장과 홍무광 형제 그리고 박병규 전 성전장의 말씀이 있었으며, 박동화 스테이크 부장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덕적 정

신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할 것과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2개월 여 남은 한해를 되돌아보며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겠다고 결의하는 계기가 되었고 “영적으로 거듭남”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도 뜻깊은 모임이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조현석(주안), 이기욱(계산), 이희범(주안) 형제가 대제사로 김대식, 배진수(담동), 이우진(주안), 김남권(간석), 김경식, 임영조, 김동성(농아) 형제가 장로로 각각 지지받았다. □

(자료 제공 : 최진수 자매)

물품번호	품명	내용	가격
53300	주님의 산 (Mountain of the Lord)	40년간에 걸친 솔트레이크 성전 건립을 위한 초기 성도들의 간증과 헌신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5,000원
80893	크리스마스 성가-CD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부른 크리스마스 성가를 담은 콤팩트 디스크. 1993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판매 예정	미정
80894	크리스마스 성가-카세트 테이프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부른 크리스마스 성가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 1993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판매 예정.	미정
33239 33242~33250	시각 보조 자료(오려낸 그림) 세트 1~10	초등학교 공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정의 밤 등에서 어린이를 위해 오려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원색 그림 세트, 사람, 경전 인물, 동물, 음식, 성전 등 10가지 종류가 있다.	각 1,600원
281002	임산부용 가먼트(상의)	면 50%의 임산부용 가먼트	3,400원
241002	임산부용 가먼트(하의)	면 50%의 임산부용 가먼트	3,400원
281008	산모용 가먼트(상의)	면 50%의 산모용 가먼트	3,400원

수입 물품 소개



역원 변경

• 천안 지방부

지방부장 : 이정은 형제
(전임자 : 김구환 형제)
홍성지부장 : 이항우 형제
(전임자 : 김상호 형제)
대천지부장 : 조창훈 형제
(전임자 : 안병선 형제)

• 영동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 서희철 형제
(전임자 : 김택우 형제)

• 부산 서 스테이크

스테이크 부장 : 배태호 형제
(전임자 : 안재석 형제)

• 서울 서 스테이크

낙성대 워드 감독 : 박주현 형제
(전임자 : 김덕호 형제)

.....

*바로 잡습니다.

- 1993년 11월 성도의 벗 지역 소식란 71쪽의 제목 '물문경 초판 기증'은 '물문경 발췌본(니파이 삼서)의 초판 기증'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 같은 호 72쪽 선교사 훈련원 제 156기의 '1993. 2. 8~1993. 2. 10'은 '1993. 9. 8~1993. 9. 19'의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선교사 훈련원 제 157 기

(1993. 9. 27 ~ 1993. 10. 15)

〈성명〉	〈출신지〉	〈선교부〉
김광일 장로	안양 S / 시흥 W	대전 선교부
김재원 장로	서울 북 S / 충정 W	대전 선교부
민성희 자매	서울 북 S / 녹번 W	대전 선교부
설상혁 장로	영동 S / 잠실 W	대전 선교부
엄성화 자매	부산 S / 연산 B	서울 서 선교부
전규석 장로	서울 북 S / 충정 W	부산 선교부
최지숙 자매	전주 S / 이리 W	서울 서 선교부



뒷줄 왼쪽부터 : 전규석, 김재원, 설상혁, 김광일
앞줄 왼쪽부터 : 민성희, 최지숙, 엄성화